



임금교섭 소식지

'조합원이 웃는 그날까지'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금) 09-1호

●발행처: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 ●발행인:김용일 ●홈페이지: www.mdnojo.com ●전화: 02-6977-6503 ●팩스: 0505-085-6503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

노동조합은 2019년 10월 17일자로 회사에 “2020년 임금인상 및 복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노조의 교섭원칙 마련 등을 위한 ‘상견례’ 요청에 따라 사측은 실무적으로 24일자에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 ▣ 일정 및 장소 : 2019년 10월 24일, 17시, 센터원
- ▣ 참석자 : 노조 김용일 위원장외 교섭위원, 사측 최현만 대표이사 외 교섭위원
- ▣ 내 용 : 교섭원칙 등 교섭실무준칙 마련 및 노조 요구안 전달

2020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임금교섭 승리로 화답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2020 실질임금인상 !!! 보편적 복지 실현!!!

조합원 총단결로 임금협약 쟁취!!!

◆ 2020년 단체교섭에 임하는 김용일 위원장의 '담화문'을 첨부합니다.

실질임금인상 쟁취!! 보편적 복지 실현!!

**‘2020년 임금협약’ 승리를 위해
굳은 결의와 각오로 단체교섭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아흔 아홉 번의 손이 가야 쌀을 얻는다는 인내와 수고를 위로하는 가을입니다. 조합원동지들이 흘린 땀의 결실을 맺는 임금교섭을 위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하고도 반년의 시간이,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합병한지 3년의 시간이 되어갑니다. 2018년 11월, 점포통합합 저지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센터원 한빛광장을 가득 메웠던 조합원 동지들과 그때의 합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전언을 조합원 동지들께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13대 집행부는 18년 및 19년 임단협을 마무리 하면서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조합원 동지들의 비판과 격려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취임 당시 ‘첫 마음’의 자세를 잊지 않고 결의와 각오를 다져 2020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교섭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합병 당시 “임직원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는 회사가 제시한 비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상품 개발은 판매실적 강요, 업무가중, 과당 경쟁으로 이어졌지만, 연봉수준은 여전히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업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조합원 동지들의 희생으로 회사는 합병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임원들의 배당잔치가 아닌, 악조건인 시장상황에서도 성과를 위해 매진한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져야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는 사용자인 회사의 자세이며, 조합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합병이후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는 창업자의 경영철학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수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고 회사로부터 큰 상처와 소외감을 갖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의 규모는 공룡이 되어 가는데 우리 노동자의 생활은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디에도 우리 노동자의 자리가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는가?” 를 임금교섭을 통해 묻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다” 면, 회사는 지금까지 모든 직원과 노동조합을 기만한 것입니다. 설령 이러한 상황이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이번 교섭을 통해 바로잡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사용자인 회사 혼자 또는 오너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기업의 인재상만을 요구하면서 “주는 대로 받으라” 는 식의 인사경영은 후진적이고 전근대적 사고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관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회사의 태도 변화가 긍정적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교섭석상에 대표자의 참석은 물론 임금교섭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 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준비되었습니다. 2019년 대의원대회를 통해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2020 임금교섭 쟁취를 위해 9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 워크숍, 상무집행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및 교섭요구안 집중회의 등 교섭을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비록 합병의 역사는 자본의 증식을 위한 도구일지는 몰라도, 우리 노동자에게는 더 큰 단결을 통해 새 물결을 이루는 역사로 일깨우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무기력한 노동조합의 대응으로 회사에 읍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3000여 조합원의 힘으로부터, 노동조합은 선봉에서 실천하고, 투쟁으로 쟁취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지지와 엄호를 부탁드립니다. 투쟁!!!

2019. 10. 18.

3000 조합원의 임금인상 쟁취!! 보편적 복지 실현!! 임단협승리!!

미래에셋대우노동조합 위원장 김 용 일